

6·4 지방선거 확대경

갈피 못잡는 신당 예비후보 등록

**‘의원직 사퇴’… 배수진 치는 후보들
‘재보선 걱정’… 만류 나서는 중앙당**

‘당이 새정치 역행’ 반응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산 도전에 나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예비 후보 등록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자들이 모든 기록권을 내려 놓겠다는 것을 중앙당이 봉쇄하고 있는 셈이어서 새정치연합이 당대표가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장, 전남지사 경선 후보군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이용섭·이낙연·주승용·김영록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섭·이낙연·주승용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경선 이전, 국회의원직 사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지난 주 국회의장실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경선 이전, 의원직 사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고 사항이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강행해 의원직을 단절 경우,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어느 한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북, 경기 등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대규모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앙당의 명분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예비후보자자적심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개장휴업’ 상태다. 자격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낙연 의원은 ‘당이 새정치 역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회의원직 사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 않겠다”며 “호남 광역단체장 경선에 예비 후보 등록이 현실화될 경우, 타 지역에도 파급되는 등 파장이 큰 현실이어서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앙당이 ‘경선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거론하고 예비후보자적심사를 늦추면서 경선 이전 국회의원직 사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데 현재 후보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나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는 중앙당 방침을 방패 삼아 의원직 사퇴에 미온적인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는 기록권 내려놓기가 시작인데 중앙당이 오히려 이를 막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소한 이번 주 초에 예비후보 등록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신당의 지도부도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선 과정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강운태 “남북 스포츠 교류 확대 환영”

강운태 광주시장은 30일 환영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 3대 제안 중 하나인 남북스포츠 교류 확대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광주시가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중인 남북단일팀 구성, 분단 후 첫 판문점을 통한 평화방송, 여도종무평양 개최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섭 “보육은 국가·지자체 책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9일 광주 보건대학교에서 보육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연수’에 참석해 “보육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아이만 낳으십시오.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권교체 실패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신현구 “여성 친화적인 서구 만들겠다”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30일 “결혼 후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서구를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자녀의 안전한 귀가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전업주부가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취업알선·일자리 마련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태, 영암군수 3선 도전 선언

김일태 영암군수가 지난 28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영암읍 기잔랜드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풍요롭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영암 시대 건설을 확실히 이뤄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민선 4-5기 동안 군민의 행복과 영암의 발전을 위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짧고 부족한 정도로 헌신을 노력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6·4 지방선거에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지난 28일 장성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유두석 예비후보는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사는 길은 국고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건교보와 중앙 부처의 경험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명한 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홍률 “목포 발전의 첫 단추는 경제다”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30일 “목포 미래 발전 비전의 첫 단추는 경제 발전”이라며 “목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무안반도 통합, 중견기업 유치, 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향만물류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안반도의 통합을 위해 단합 시장을 약속하고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노인 일자리 최대한 확대 지원”

이상열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30일 “현재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라면서 “노인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건강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최대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도심 직정 지역에 목포시노인복지관 이전 계획을 수립·추진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두근, 함평군수 출마 공식 선언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는 지난 27일 함평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함평농협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우리 군을 마당 바라볼 수 만큼 없게 내고향 함평을 살리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희망을 잃고, 행복하지 못한 함평군민의 변화를 요구하는 갈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영록, 강진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장영록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10시 강진군 강진읍에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장 예비후보는 “40년의 행정 경험을 통해 강진 발전의 청사진을 만든 강진의 진짜 토박이”라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거창한 공약보다는 군민이 보다 질할 수 있는 의견부터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광주시의원 출마 선거사무실 개소식

김영준 광주시의원(서구 제4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서구 급용동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서창동 탄약고 이전은 광주의 희망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모범적 개발을 이뤄내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



여야, 원내대표 경선전 후끈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자리 놓고도 물밑경쟁 치열

19대 국회 임기 반점점을 두 달 남짓 앞두고 후반기 국회를 운영해 나갈 국회의장과 여야 몫 부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 물밑경쟁이 시작됐다. 또 여야 원내사령탑 자리를 놓고도 경선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우선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놓고 황우여 대표가 일찌감치 도전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에 5선의 정의화 의원이 황 대표에 대적할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당 몫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5선의 이미경·이석현 의원, 4선의 김성곤 의원 간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타이틀을 노리는 이미경 의원은 당내 여성 의원의 전폭적

인 지지와 친노(친노무현)계와 인연 때문에 타 주자에 앞서 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반기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현 박병석 부의장에게 불투망 삼킨바 있는 이석현 의원은 오래전부터 부의장 자리를 준비해왔고, 의원들 간에 지난번 석패에 대한 ‘동정적 지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의원으로 중도·합리적 성향의 김성곤 의원은 후발주자이지만 당내 온건 성향 의원들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원은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등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여당과의 소통에 능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보다 앞서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총남지사를 지낸 3선의 이완구 의원이 급부상한 형국이다. 여기에 4선 중진의 정갑윤 의원이 출마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심재철 최고위원과 3선의 유기준 정무택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박영선·노영민·우윤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중도 성향의 김한길·안철수 대표에 대한 ‘검제본’을 내세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박기춘 전 사무총장은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주자로는 거론되고 있으며 손학규 상임고문계의 조영식 의원과 혁신그룹의 이종걸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第25期 決算公告

재무상태표

Table showing financial statements for 2013. Columns include 자산 (Assets) and 부채와 자본 (Liabilities and Equity) with sub-categories like 1. 유동자산 (Current Assets), 2. 비유동자산 (Non-current Assets), 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2.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제28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Table showing financial statements for 2013. Columns include 계정과목 (Accounting Items), 금액 (Amount), and 부채 (Liabilities) with sub-categories like 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2.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제10기 결산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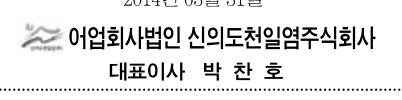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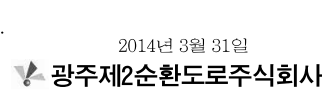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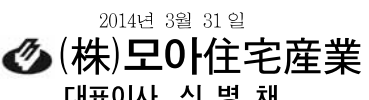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Table showing financial statements for 2013. Columns include 계정과목 (Accounting Items), 금액 (Amount), and 부채 (Liabilities) with sub-categories like 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2.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제4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Table showing financial statements for 2013. Columns include 계정과목 (Accounting Items), 금액 (Amount), and 부채 (Liabilities) with sub-categories like 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2.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감사 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2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 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2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 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10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 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승인회계법인 대표이사 최석봉

신승회계법인 대표이사 신완민

신승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조남석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경태